

“대기업 유치 위한 전용 산단 조성...지역경제 살리겠다”

을사년 새해설계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대응 등 을 사업 목표 설정 회원사 직면 문제 파악 경영 환경 개선 일조 다짐 고용 창출·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 지속 가능 성장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지난 한 해는 다사다난한 시기였음에도 회원사와 지역민들의 성원 덕분에 목포상의가 많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 회장은 올해 예상되는 민간 소비 위축, 수출 경쟁력 저하 등 저성장 고착화로 인해 지역 경제에도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과거 IMF와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살려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목포상공회의소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



다는 각오를 전했다.
올해 목포 상의의 주요 사업 목표로는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 대응 ▲회원 만족 서비스·네트워크 확충 ▲기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정 회장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회원사가 직면한 주요 문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사, 견인, 교육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경영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

혔다.
이를 위해 목포상의는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그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 대기업 유치,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비롯한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정책과 시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기업 유치를 위한 전용 산업단지 조성안을 정·관계에 제안해 검토 중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의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상의는 회원사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비회원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 웨딩, 장례, 숙박 등 8개 분야 26개 업체와 제휴를 맺고 제휴 할인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올해는 제휴 분야와 업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사 임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정 회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화두로 고용 창출을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기업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상의는 현재 추진 중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니어인턴십, 미래내일일자리경쟁프로그램, 중장년내일센터,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청년층 뿐만 아니라 중장년과 노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목포상의는 상의와 회원사, 지자체와 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상공 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회원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쓸 예정이다.
정 회장은 “목포상의는 항상 회원사와 지역민과 함께하며 지역 경제 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갈수록 변화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국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회원사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기자

기업 양극화 심화...대기업 생산 ‘최고’·중소 ‘최악’

지난해 ‘수출 호황’ 대기업 5.2% ↑ ...중기 내수 팽 2년째 ↓

지난해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황으로 대기업 제조업 생산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기록을 세운 반면 중소기업은 내수 부진 여파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국내 정치 불안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고환율 기조 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대기업·중소기업 간 온도 차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1~11월 대기업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한 114.8(2020년=100)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최대치다.
세부 업종별로는 주로 반도체와 자

동차에서 생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43.9%나 늘면서 역대 최고(1천419억달러) 기록을 세웠고 이에 힘입어 전체 수출도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자동차 수출도 세계적인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전체 수출의 10% 이상을 유지했다.
반면 작년 1~11월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전년보다 0.9% 줄어든 98.1에 그쳤다. 역시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2023년(-1.3%)에 이어 2년째 감소세다.
세부 업종별로는 중국 경기 부진으로 수요가 줄어든 화학제품과 의복 분

야에서 특히 업황이 좋지 않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올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국내 정치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외풍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장기화 전망이나오는 고환율 기조는 원자재 가격을 올려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작년 9월 발표한 ‘중소기업 환율 리스크 분석 연구’에 따르면 매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환차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내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환 헤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 1153 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당첨번호 1 9 10 13 35 44 /보너스 5		
1등	2,027,312,925	6개숫자 일치
2등	64,155,473	5개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3등	1,445,603	5개숫자 일치
4등	50,000	4개숫자 일치
5등	5,000	3개숫자 일치

신협 광주전남본부 시무식...“조합 건전 운영 지원”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3일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힘찬 출발과 광주전남 신협 발전을 다짐하는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하 신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 고영철 신협중앙회 이사(현광주문화신협 이사장), 김학산 신협중앙회 이사, 최문주 삼애신협 이

사장 등이 참석해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결의를 다졌다.
김영하 신협 광주전남본부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5년에도 광주전남신협의 든든한 동반자로 조합의 건전 운영 지원을 통해 광주전남신협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매기자



‘포차코 키즈폰’ 출시 KT가 산리오 인기 캐릭터 ‘포차코’ 테마를 적용한 스마트폰 ‘포차코 키즈폰’을 KT 공식 온라인몰 ‘KT닷컴’에서 전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KT 제공)

확박한 가계살림에...보험계약대출 ‘역대 최대’ 전망

작년 10월 말 1조원 늘어

고금리·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 규모가 70조원을 넘어섰다. 계약을 중도에 깨고 돌려받은 돈도 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

면 국내 보험사들의 지난해 10월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388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보험 계약자가 주로 이용해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보험계약대출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말 기준 68조4천555억원에서 2

023년 말 71조5천414억원으로 늘었다.
작년 1분기 말 70조1천억원, 2분기 말 70조2천억원으로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3분기를 넘어가면서 1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이런 추세면 연말 기준으로는 2023년 수치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연말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대출이 보험을 포함한 2급 용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연합뉴스

방수제·바닥재·혼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U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